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년 봄 | 13호

특집 토우 | 박물관탐방 국립경주박물관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무관심성과 구수한 큰맛

전시실 산책 逸脫의 名品 | 답사기 사막 먼지 속의 불멸

유물사랑 유리동자상의 은근한 눈길

강의를 들으며 그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말 걸기

기증유물 프랑스 판화가 한국에 오다! | 후원음악회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꿈 밭에 봄 마음

김 영 랑(1903~1950)

구비진 돌담을 돌아서 돌아서

달이 흐른다 놀이 흐른다

하이얀 그림자

은실을 즈르르 돌아서

꿈 밭에 봄 마음 가고가고 또 간다





토 우

그들의 喜·怒·哀·樂



유물 전시장을 내려다보는 관람객들 얼굴에 웃음이 번져있다. 그 곳은 어른 손가락 크기의 사람과 동물모습을 한 신라시대 土偶들이 전시되어 있다. 손쉽게 꺾꺾 눌러 놓은 듯, 어린아이 손장난으로 빚어 놓은 듯, 숨김없이 자유롭게 나타낸 性的 표현들로 당당히 우리와 마주하고 선 모습에서 다른 유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색다름이 엿보인다. 세부적 표현을 과감히 생략하고, 한 부분을 과장되게 묘사해 놓기도 하고, 마치 크로키와 같이 순간의 모습을 정지시켜 나타낸 것도 있다. 간략하게 표현된 얼굴에서 의사와 천진난만함, 그리고 비통함까지, 그 속에 인간의 喜怒哀樂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장인의 손끝으로 어떠한 꾸밈도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한 덩이 흙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기에, 우리에게 더 진한 감동과 예술성으로 다가오는가 보다.

土偶란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넓은 의미로 사람의 모습뿐 아니라 동물, 집, 생활 용구 등을 본떠 만든 것 모두를 포함한다. 토우는 주로 주술적 행위의 대상이나 무덤에 넣기 위한 明器로 제작되었다. 동·서양 여러 지역에서 두루 출토되는 선사시대 토우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多産을 기원하는 주술적 숭배대상으로 풍만한 여성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오래된 토우로 체코의 베스트니체유적,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유적 여신상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시대 토우는 적은 수가 동남해안과 동북지역의 패총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나온 곰, 멧돼지 등 동물토우는 수렵생활 뿐 아니라 종교·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토르소를 보는 듯한 신암리유적의 여인상을 비롯해 여성의 몸을 형상화한 토우는 자손번영과 安産, 생활의 풍요를 기원했다. 청동기시대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그 후 삼국 중 신라지역에서 인물 및 동물형 토우와 土俑이 많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것 역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불교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는 무덤 속에 인물, 동물, 생활용기 등 백자로 만들어진 명기를 넣었다.

신라 토우는 크게 장식토우와 상형 토기, 토용으로 분류된다. 장식토우는 토기 몸체에 인물과 동물모양을 작게 만들어 붙인 것이다. 상형토기는 인물, 동물, 기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토기이다. 대부분 장례의식이나 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말·수레·배 모양 등은 영혼을 하늘로



실어나르는 수단으로, 또한 집모양토기는 사후세계에서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기마인물형토기(金鈴塚 출토) 등은 뛰어난 조형미로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 토용은 독립된 형태로 만든 인물이나 동물 모양으로, 주로 7~8세기 통일신라고분에서 출토된다.偶는 인형·허수아비를 의미하고 俑은 순장을 대신하는 인형을 뜻한다. 경주 용강동,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문관, 병사, 여인, 서역인상의 토용은 얼굴 표정뿐 아니라 옷차림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부장인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토우는 거의 의복을 생략하거나 소박한 바지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토용의 경우 주로 통이 넓고 긴 袍나 풍성한 치마를 입고 사모를 쓰거나 손에는 笏을 들고 있는 것이 많다. 당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만들어져 복식이나 모습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토용에 비해 토우는 순수 신라인의 모습이며 문화라 할 수 있다. 그 외, 線刻한 토우는 토기의 어깨 등 장식토우가 있음직한 위치에 선각으로 인물이나 동물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사용목적은 장식 토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장식토우는 高杯나 長頸壺 등에 부착된 소형토우를 말하는데 크게 인물과 동물로 구분된다. 대개의 경우 형태가 매우 간략하고 소박하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그 祈願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과장하여 만들었다. 여성상의 경우 가슴과 엉덩이, 성기 혹은 임신한 모습을, 남성

상은 성기를 과장하고 노출시킨 예가 많다. 성풍속과 관련된 토우에서 꾸밈없이 솔직하고 노골적인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성을 감추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자손 번창이 가져오는 풍부한 노동력이 풍요로운 삶의 한 수단임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사후 세계에서도 현세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염원하였다.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슬픈 얼굴, 기쁨이 가득한 얼굴 등, 작고 빈약하며 이목구비가 생략된 얼굴에서도 인간의 풍부한 감정을 잘 찾아낼 수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풍속, 복식, 신앙 등 생활양식이 담겨있다. 문헌상 기록보다 생생한 신라인의 정서와 감정이 작은 토우에 사실적으로 실려 있어 당시의 모습이 보다 쉽고 생생하게 나타난다. 신라토우에는 그들의 예술적 활동이 담겨있다. 가야금, 비파, 피리를 연주하는 모습과 양팔을 들고 가락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덩실덩실 춤추는 듯 춤사위가 느껴지는 토우도 있다. 신라인의 생활 속에 음악이 자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동물장식토우는 개, 뱀, 개구리, 용, 거북이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각기 풍요, 신성함, 장수와 재생 등 의미 있는 상징성과 주술적 성격이 들어있다. 흙으로 동물의 특징을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놀랍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원숭이나 개미핥기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아 눈길을 끈다.



작은 토우 속에 만든이의 정서와 생각이 담겨있고, 그 속 깊숙이 신라인의 삶이 녹아있다. 흙에서 태어나, 단순하고 때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꾸밈없는 모습으로 토우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넘어 그들의 喜·怒·哀·樂을 들려준다, 나지막하게. 



작은 사람들 숨김 없는 진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솔직했을까? 아니 자신의 맨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얼마나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살까. 철없던 어린 시절 그 다양하고 많은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 한번 크게 울어보았나, 언제 한번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마구 웃어 보았던가. 여기 그런 순진 무구한 사람들이 있다.

신라의 작은 사람들, 토우는 새박물관 고고관의 신라실에 있다. 바로 옆방의 찬란한 금관이 보여 줄 수 없는 삶의 본디 모습을 보여준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온 다른 생명들에 의지해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삶의 밑바닥 진실을. 화려하지도 않고 더구나 세련되지도 못한 모습들. 만약 경주의 능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린 아이가 찰흙으로 장난친 것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크기는 손가락 하나 길이도 안되지만 꾸밈없는 표정은 생생하다.

항아리의 긴 목에 붙어있던 토우는 곧 저승에서도 이승과 같은 삶이 계속되기를 바랐다고 말해 준다. 그래서 큰 항아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곡식을 가득 채우고 밖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 붙였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여다보면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일임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밀고 가는 일임을 느낀다. 이런 생명의 모습을 보며 죽은 자가 위안을 얻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저승에서도 이렇게 웃고 울며 넉넉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랐을까. 바란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무덤 속에서 나온 토우들 어디에서도 무표정한

모습은 없다.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웃거나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사냥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모두 살아서 움직이는 중이다. 그들에게선 생명의 기운만이 흘러넘친다.



생명은 기쁘다. 사랑은 이렇게 한다고 온 몸으로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性에는 얼마나 많은 군더더기가 붙어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얼싸안았다.



또 한 치의 틈도 없이
부둥켜안았다. 윤리나
도덕으로 가로 막고
포장하기 전, 性의 원래
모습이 있을 뿐이다.

경주 노동동에서 나
온 긴목항아리에는

즐거운 신라 여자가 살고 있다. 뒤쪽의 남자를 향해 얼굴을 살짝 돌린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여자! 여자의 다른 모습은 간략하기 그지없지만 허리 아래쪽부터 무릎 그리고 약간 들어 올린 발까지에서 뿜어내는 긴장감.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키는 터질 듯한 생명의 힘이다. 거기다가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라니. 성을 다룬 어떤 유물에서도 저렇게 순진하고 솔직한 얼굴을 본 적이 있던가? 이처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쁜 웃음을 본 적이 있던가? 아쉽게도 상대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는 없다. 다만 여자의 기쁜 웃음으로 상상하건대 이에 어울리는 환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힘들다.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보여주는 작은 엄마들도 여럿 있다. 얼굴을 똑바로도 못하고 옆으로 돌린 채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산의 고통으로 몸은 활처럼 휘어졌다. 불룩한 앞가슴과 그보다 더 불룩한 동산만한 배 그리고 크게 열려 아기가 막 나오려는 자궁. 어떤 아기는 머리를 조금 내밀었다. 생명이 나오는 순간의 고통은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그만큼 힘이 드는 큰일이라고 작은 엄마들은 온 몸으로 나타낸다.

생명은 슬프다. 한번 이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지만 아무리 자연의 이치가 그렇더라도 슬픈 건 마찬가지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죽은 이를 무릎에





안고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사람. 그 작은 어깨와 등을 깊이 떨구었다. 두 팔로는 죽은 이를 거의 안다시피 하고서. 그런데 안는 동작에도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다르다. 기뻐서 안을 때는 한 치의 틈도 없었는데 슬퍼서 안을 때는 이승과 저승의 간격만큼이나 큰 틈이 벌어졌다. 삶을 껴안을 수는 있어도 죽음을 껴안을 수는 없음인가. 소리 없이 흐느끼는 작은 사람의 뒷모습이 애처롭다.

흙으로 아무렇게나 주물러놓은 듯한 작은 토우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삶이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기쁘면 크게 히죽 웃고, 슬프면 옆드려 울고, 그리고 그냥 몸 하나를 가진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사랑하는 건데. 온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으면서 들판의 꽃도 보고 가끔 밤하늘의 별도 헤아리면서. 젊을 때는 둘이 한 몸도 되고 아이도 낳으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 이가 빠지면 빠진 채로 합죽하니 온 얼굴 가득 주름살을 짓고 웃으면서……. **진**





동물 모양 사람 마음

살짝 누른 소의 등은 근육으로 살아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손자국은 천오백년의 세월동안 동물의 몸에 溫氣를 돌게 한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인간과 동물은 언제나 함께였다. 친구며 때론 무서운 경쟁자이기도 한 동물은 신라인의 손끝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간절한 기원을 담아 토우로 다시 태어났다.

커다란 뿔을 가진 사슴 두 마리가 매끈한 단지의 어깨위에 떡 버티고 서서 그 偉容을 자랑한다. 가야의 사슴이 있는 구멍 단지(雙鹿裝飾有孔壺)는 의식용 향아리에 상서로운 짐승인 사슴을 장식하였다. 싸늘한 바람이 주위를 감싸도 살짝 벌린 입에 고개를 약간 치켜들고 도도한 뿔을 뿜내며 지긋이 앞을 응시한다. 날렵한 머리에 비해 다소 둔해 보이는 몸과 짧은 다리는 무게감과 당당함을 더해준다. 누가 우리의 앞을 막아설 것인가. 사슴의 고고한 기상은 철의 왕국 가야의 높은 氣概를 보여준다.



왜 뱀은 늘 개구리(두꺼비) 뒷다리를 물고 있을까. 토우 붙은 향아리(土偶附長頸壺 국보 195호)



의 개구리는 고통스럽다. 길게 파인 눈과 크게 벌린 입이 펄쩍 뛰어 작은 뱀을 떨쳐버리고 도망갈 기세다. 그 옆의 개구리는 커다란 아가리에 뒷다리가 너무 짝 물려 움짱달짝 못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뱀이 몸을 비틀며 요동치자 체념한 듯 힘이 빠진다. 허물을 벗으며 동면하는 뱀은 재생과 불멸의 상징이고, 개구리는 多産을 나타낸다. 뱀이 개구리를 무는 것은 다산과 재생, 불멸의 연결 고리



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언제나 永遠을 꿈꾼다.

동물이 새겨진 긴목항아리(動物文臺附長頸壺)에는 달리는 말, 사슴, 개가 線刻으로 새겨져 있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개와 말, 신성한 동물인 사슴이 한 방향으로 뛰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땅을 박차고 달리는 말과 우아하게 뛰어 가는 사슴, 그 뒤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는 개. 아무렇게나 씩 그어버린 선 몇 개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힘이 놀라울 따름이다. 바람을 가르며 끝없는 초원 위를 아직도 달리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

고배 뚜껑이나 항아리 어깨위에 장식으로 붙인 토우들을 모아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에 작은 동물원을 이루었다. 토끼가 귀를 쫓긋 세우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멧돼지는 둔탁한 코를 땅에 박고 등을 곧게 세워, 곧 돌진할 태세다. 둥그런 눈과 대지를 단단히 짚고 있는 힘 있는 다리, 등의 근육은 산과 들을 마음껏 누비고 다녔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과 동물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같이 호흡하며 그들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하나하나의 표정에서 친근함이 느껴진다.

눈을 부릅뜨고 용솨음치는 龍은 상상속의 동물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꿈틀대는 몸체에는 사선의 비늘이 살아 움직이듯 그려져 있고, 앞뒤로 벌린 네발은 활기차게 움직이며 昇天을 준비한다. 머리를 들고 사방을 살피보는 거북이와, 목을 잔뜩 움츠린 채 겁을 먹고 있는 자라가 있다. 나라 수호와 장수에 대한 기원은 물과 땅, 두 군데를 누비는 동물로 표현되었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세상일에 무심함을 보이는 맹꽂이도 보인다. 이밖에도 주둥이가 길쭉하고 꼬리를 바짝 치켜든 남미 대륙에 서식하는 개미핥기도 있어 외국과의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생활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언제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포획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동물로부터 몸을 지키고자하는 소망은 사냥에 관련된 주술이나 의식을 행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라인들은 토우를 만들었다. 작은 흙덩이를 조물조물 만들어 갖다 붙이면 게 발이 되어 옆으로 기어가고, 살짝 구부린 새의 꼬리와 날개는 파닥거리며 다른 세계로 영혼을 인도한다. 흙을 만지며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인간이 바라는 염원은 아득한 그 시대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 **47**리



월성 아래 다시 천 년이

국립경주박물관

천년왕국 신라로 가는 여행은 늘 설렘으로 시작한다. 긴 세월만큼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경주는 그 대로 거대한 박물관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910년 ‘경주신라회’로 결성된 후로 해방을 거쳐 지금의 인왕동에 본관과 별관, 종각을 짓고 이관하였다.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자리 매김한 박물관은 고고관, 미술관, 안압지관, 특별전시관 등과 뜰 전체가 보물창고인 옥외 전시관을 두고 있다. 소장 유물이 21만여 점에 이르며, 3천여 점의 유물을 상설전시한다. 이번에는 주로 미술관을 둘러본다.

미술관은 1층에 역사자료실과 조각실, 2층에 금속공예실과 황룡사실로 구분된다. 역사자료실로 들어서자 바닥의 투명한 통유리가 눈길을 끈다. 아래에 신라시대 동·서 도로유구가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토기유물을 유추해 만들어진 수레가 전시되어 생생함이 전해진다. 신라왕경의 복원 모형을 통해서 당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왕경의 크기가 지금의 모습과 거의 일치 한다니 그 규모에 새삼 놀라게 된다. 보물인 壬申誓記石에는 두 화랑이 새긴 공부와 인격도야에 관한 맹세를 볼 수 있다. 일곱 번이나 들어가 있는 ‘맹세할 깃’는 그들이 얼마나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지 짐작된다. 신라의 능묘비 중에 가장 연대가 빠르다는 문무왕릉비도 감상해 본다.

조각실 I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소형 금동불을 주제별·시대별로 전시하여 그 변천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불국사의 금동아미타불, 비로자나불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3대 금동불의 하나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손을 잃었으나 이전엔 약단지를 받들고 있었으리라. 조각실 II에 전시된 다양한 석조불상들은 인도·중국과는 달리 주로 견고한 화강암을 썼다. 특히 남산 장창골의 석조미륵삼존불상은 크고 넓적한 얼굴에 은행 알 같은 눈을 하고 있으나 화강암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미소는 부드럽다. 팔다리를 쭉 뻗어 돌기둥에 기댄 조각실 사자입상이 특히 눈길을 끈다. 미끈하게 빠진 뒷모습과 옆으로 살짝 돌린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애교스러운지. 이곳에서 우리는 이차돈을 만나게 된다. 잘린 목에서 흰 젖이 솟아오르고, 땅이

진동하고, 득도한 석가가 설법할 때 내린다는 꽃비가 돌을새김 되어 있다.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순교한 지 290년이 지난 후에 그를 추모하여 세운 비라 한다.

2층의 금속공예실에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불교의 식구가 있다. 특히 감은사 사리장엄구의 섬세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이 절로 난다. 신라 세공 기술의 극치가 아닐런지! 다양하고 화려한 수막새를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황룡사실에는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인 불상, 사리장엄구, 기와 등이 있다. 전시실 중앙의 커다란 망새에 표현된 사람얼굴이 인상적이다. 턱수염과 콧수염이 있는 남자와 실눈을 한 여자를 마주하니 저절로 웃음이 난다. 신라의 가장 큰 절이었다는 황룡사, 1:60으로 추정 복원한 모형을 보며 불타버린 안타까움을 달래본다.



박물관 뜰로 나가면 석조불상·석탑·석등 등이 전시되어 그대로 조각공원이다. 불상사이의 산책로로 들어서면 시간을 거슬러 어느덧 신라여인이 된다. 한발 두발 오르면 얇은 구름이 걸린 소나무 사이로 삼층석탑이 보인다. 두 손 모아 탑을 돌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뒤쪽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을 따라 청명한 종소리가 들려온다.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이리라. 지금은 아쉽게도 녹음된 소리로 밖에 듣지 못하나, 앞으로 신종을 복제하여 타종한다고 하니 그 때를 기대해 본다.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만의 특화된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야간개관과 함께 무료강좌인 ‘금요일 밤의 국보순례’ 등 적극적으로 시민을 끌어들이 문화체험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공단,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우리문화를 알리고 있지요. 박물관 마당을 열어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며 일본 나라 박물관과 중국 섬서 박물관과도 전시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노력하겠다는 관장님의 박물관 애정은 특별해 보인다. 천 년의 역사동안 풍부한 산물과 문화의 집산지였던 경주. 신라인이 남겨준 유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여행은 즐거웠다. **11** **12**



무관심성과 구수한 큰맛


又玄 高 裕 燮 (1905~1944)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

조선 미술의 특색으로 무관심성을 들 수 있다. 예를 경주 東京館에서 들자면, 그 후면에 열주가 부식되는 대로 석주기초로 보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둥마다 같지 않아 장단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스 신전 건축의 원형석주가 이러한 데서 발전된 것이라 하지만, 조선에서는 거기까지의 발전이 없이 한갓 무관심성만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성은 도처에 드러나, 조선의 건축에는 목재의 자연적 굴곡이 아무런 정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다.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같은 데서 그 심한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굴곡진 재료를 규격 있게 정제는 하지 않았지만 목재의 본형을 그대로 양식구성에 사용하여 양식 감정의 표현을 순리적으로 한다. 예컨대, 합천 해인사의 구광루의 하층 나무기둥 같은 것이 그것이니, 굴곡져 배부른 면을 전면으로 하여 소위 엔타시스적 효과를 내었다. 보통 민가에 있어서도 추녀의 반전을 형성할 때 바른 나무를 굴곡지게 기교적으로 계획적으로 깎지 아니하고 이미 자연 그대로 있는 굴곡진 목재를 그대로 엮어 만들어낸다. 이리하여 무관심성은 마침내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구름에 집을 짓고 담을 둘러쌓을 때 층지게 쌓는다. 그곳에 자연에 대한 강압이 없고 자연에 대한 순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성은 가끔 통일을 위한 中道에 中斷이 있고, 세부에 위하지 않는 소략성이 있다. 중도에 중단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객쩍은 것이 가미되게 되고, 그리하여 완전 통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리하여 그 결과로 크고 거친 비예술적인 결과가 나온다.

크고 거친 것은 확실히 결점의 하나이나 그것도 정도 문제이다. 즉 세부에 있어서는 치밀하지 않으나 그러나 세부에 있어 치밀하지 않은 점이 더 큰 전체에 포용되어 그곳에 구수한 큰맛을 이루게 되는 것은 확실히 예술적 특징의 하나이다. 전에 말한 생동성의 문제는 이곳에 결들여 있는 것이니, 예컨대 분청사기라는 粉粧灰靑釉器의 큰맛이란 것은 이러한 크고 거친 면에서 이루어진 큰맛이요, 생동성이다.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서 치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움직이고 있다 하여 광란만이 있게 되면 그것은 예술성을 넘어선다. 이곳에 경계할 점이 있다.



하여간, 이와 같이 치밀하지 못하고 크고 거친 일면의 특질이 있는 것은 웬만한 중도에서 체념에 떨어져버리는 데도 그 원인이 하나 있겠고, 또 조선의 미술이 상품화되지 못한 곳에도 그 원인이 하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즉 신념상 문제이며, 후자는 즉 사회적 문제이다.

조선미술에 있어 구수한 큰맛이란 확실히 특징적 일면이요 번역할 수 없는 일면이다. 중국의 미술은 웅장한 건실미가 있으나 이 구수한 맛은 없는 것이며, 조선의 미술은 체량적으로 비록 작다 하더라도 구수하게 큰 맛이 있는 것이다. 조선미술에서 나는 항상 한 개의 모순을 본다. 그것은 작은맛과 큰맛이다. 조선의 미술은 단아한 면을 갖고 있다. 이 단아라는 것은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다. 그러나 다시 큰맛이 있다. 큰맛은 단아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단아한 작은 맛이란 외부적·자연적·지리적 환경의 소치가 아닐까? 즉 단아란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요, 큰맛이란 생활의 면, 생활의 태도에서 오는 면이 아닐까한다. 즉 무관심, 체념 등에서 거칠고 큰것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는데, 큰맛이 있고 다시 생활력의 둔한 곳에 큰맛이 있지 아니할까 한다. 이미 조선의 예술이 생활과 밀착된 것임을 말하였지만, 조선의 생활은 또한 땅에 뿌리깊이 밀착하고 있다. 조선의 생활은 아직도 흙냄새가 난다. 이것은 결국 서민사회·시민사회를 이루지 못하였던 곳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미술은 확실히 토지에 밀착하고 있다. 땅을, 생활을 깊이 확실히 물고 있다. 일본의 日光廟나 아사쿠사 관음당 같은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이지만, 그것은 공중에 뜬 신기루다. 그러나 조선의 건축은 어느 것을 보든지 그대로 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반석같이 서 있다. 일본의 예술이 세부까지 치밀하고 전체가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음에서 실제로는 어땠는지 간에 큰맛이 적음에 대하여, 조선의 미술은 거칠면서도 땅에 파묻혀 있는 곳에 큰맛이 있는 듯하다. 거칠기만 하면 구수하지 못할 것이요, 땅에 파묻혀 있기만 하면 크지 못할 것인데, 이 두 면의 합치가 구수하게 큰맛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단아한 맛과 구수하게 큰맛이 개념으로서는 모순된 것이나 적조와 유머가 합치되어 있음과 같이 성격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이의 좋은 예로 경주 봉덕사종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실로 구수하게 크다. 그러나 동시에 단아성을 잃지 않고 겸하여 윤곽의 울동적인 선이 다시 우아성을 내고 있다. 조선의 청화자기에서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확실히 조선미술의 전통적 특색의 하나라 할 수 있다. 

逸脫의 名品

유 건 집 (회원)

‘모든 미술품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先人들은 여기에 대하여 神韻과 生動·形似의 셋으로 나누고 신운은 언제나 형사의 밖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神韻寓于形似之外 而形象寓于神韻之中]. 이는 작가의 예술적 靈感이 먼저이고 그 속에서 작품이 형상화 된다는 말이다. 작가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을 볼 때에도 작가의 마음에 가까이 갈수록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 거기에 무슨 理論이나 법칙이 따를 수 없고, 오직 감각적인 慧眼만이 그 마음의 가닥들을 찾아 再現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陶瓷室은 정말 輝煌燦爛하다. 높은 예술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명성을 떨친 작품들이 여러 점 있기 때문이다. 磁器가 가지는 예술적 특징이 固定的인 것이라면, 그림의 특징은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상상의 폭이 넓은 그림 쪽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를 대할 때마다 그릇 따로 문양 따로가 아니고 그 둘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작품을 보고 싶어했다.

이 도자실에 어느 그림 못지않게 動的인 예술품이 자리하고 있으니, 그것이 백자철화끈무늬병 [白磁鐵畫垂紐文瓶]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경복궁 초기부터 나를 魅了시킨 이 걸작품은 새 박물관에서 한층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얀 살결에 적당한 볼륨으로 퍼져 내린 線만으로 형상이 모자람이 없다. 거기에 한 획의 검붉은 철화가 목에서 등으로 바로 흘러내리다가 어깨선에서 40° 정도로 각도가 달라진다. 그냥 평범하게 본다면 병에 끈을 매어서 들고 다니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기 좋게 만든 술병 정도로 생각한다. 백자 그대로 그냥 둔 것보다는 재치가 반짝이지만, 그것뿐이라면 이 작품의 값어치를 반도 못 본 것이다.

자세히 보면 이 병은 약간 돌아앉은 裸身の 女體를 形象化한 것이다. 눈이 시리도록 맑은 피부,

긴 목에 가녀린 어깨 아래로 다리를 개고 앉은 풍만한 둔부 등 모자람이 없다. 한 붓으로 처리한 철화의劃은 여인의 머리채다. 이제 막 목욕을 끝낸 주인공이 늘어진 머리를 매만지기 위해 두 손을 올려 잡을 자세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끈으로 묶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술병의 끈이라면 바로 늘어져야 맞다. 도공은 의도적으로 어깨선에서 앞쪽으로 걸치게 해서 머리 속에 그리던 자태를 재현한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여인의 이런 동작과 모습이 오래 전부터刻骨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손에 흙물을 묻혀온 도공의 머리에 사라지지 않는 영상이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호젓한 산골의 맑은 물가에서나, 유두날 개울가에서 몰래 훑쳐본 그리운 여인의 자세일 수도 있고, 이젠 옆을 떠나고 없는 젊었던 아내의 영상일지도 모르지만, 사무치게 보고 싶은 대상이리라. 긴 세월 눈감으면 그때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고, 수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영원히 볼 수 있게 재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품인 것이다.


이마에 땀방울 맺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물레를 돌리며 손으로 어루만져 탄생시킨 염원의 형상이었다. 충혈된 눈으로 밤새 바라보던 그는 물기 가신 女體에 굵은 붓으로 酸化鐵 顔料를 꼭 찍어 단번에 그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그어 내린 것이다. 지금 그 광경을 그려만 봐도 긴장되는 순간이다. 마치 絶世의 劍客이 전신의 氣를 모아 최후



의 眞劍을 휘두르듯이 도공의 붓은 거침없이 그어졌다.

그리고 끝에 와서 묶였던 머릿결이 너무 길어서 한 번 굽이쳐 감겼다. 힘찬 붓의 힘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는 여유! 그야말로 會心の 一筆이다. 이 얼마나 마음속에 수없이 그려 온 神韻의 形象인가.

그리하여 술병이란 이름으로 곁에 두고, 평생 手澤이 반반하도록 매만지며 함께할 수 있는 伴侶가 생긴 것이다. 그리울 때면 언제나 그 속의 술을 마시며 가슴에 안고 어루만졌을 것이다. 無限의 可能性을 지닌 線 곧 끈이라는 外形을 빌어 내심의 像을 완벽하게 예술로 승화시킨 이 “니느히”야말로 無名으로 사라진 一代의 名匠이다.

전시실을 나오면서 이런 선인도 있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거울 못을 내려다보니, 파란 하늘에 구름 몇 점이 물 위에 비친 사이로 검은 눈썹의 무뚝뚝한 사나이의 미소가 스쳐 갔다. 

[참고] ‘니느히’에 대하여 아직 밝혀진 바 없다가에 添記하여 둔다.

이 병의 굽 안 바닥에 철화로 “니느히”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관해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도공의 이름을 “니느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곧 “니”는 李요, “느히”는 “사나히”를 뜻한다. 朴通事諺解 初刊本에 “성이 니가[姓李的]”이라 했고, 小學諺解에는 “스나히와 간나히”[男女]라 하여 남자를 “스나히”로 여자를 “간나히”로 썼다.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석보상절에는 “싸히소리 갓나히소리”[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라 하였다. 이는 <싸히+관형격>의 형태이니 관형격을 빼면 “싸히”가 된다. 즉 남자는 “싸히”로 표기하고 여자는 “갓나히”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시가 없어지고 “나히”만 남게 된다. 따라서 “니느히”란 성이 <이>씨고 이름은 <느히>가 된다. 그 시대의 도공의 신분으로 보면 이런 이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얼마 전 까지 시골 여자 아이에게 ‘간난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도 그런 것이다.

사막 먼지 속의 불멸

이집트 답사기

조미연 (회원)

지난 가을 하워드 카터의 '투탕카멘의 무덤'을 어쩌다 읽게 되었는지. 책을 덮은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이집트 행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미라의 저주가 무덤 발굴 관계자들을 덮친다는 추측은 늘 떠도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어쩐지 멋진 황금 마스크의 투탕카멘이 나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옛된 얼굴 어디에 저주가 숨어있단 말인가. 하긴 세상살이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는가마는.

답사 3일째 우리 일행은 카이로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룩소르로 이동했다. 아침햇살을 받은 고대 유적도시는 불타듯, 서서히 달아오르는 민둥산과 붉은 사막 천지였다. 배에서 만난 짙은 속눈썹의 잘 생긴 소년에게서 지도 한 장을 구입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양안으로 질푸른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었다. 나일강이 이집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 눈에 보여주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지하세계를 돌아 동쪽으로 다시 뜬다고 믿었다. 따라서 동쪽은 산 자의 땅, 서쪽은 亡者의 땅이 된다. 룩소르는 나일강 東岸과 西岸이 대조적이다. 동안이 카르나크 복합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비롯한 기념비적 유적이 있는 대도시라면 '테베'나 '네크로폴리스'라고도 불리는 서안은 농경지와 파라오들의 사당과 무덤이 즐비한 곳이다.

테베 답사에서 맨 먼저 찾은 곳은 왕들의 계곡이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곳곳에 뚫린 고분 입구는 사진과 책으로 익숙한 풍경이었고, 맑은 대기를 뚫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은 눈부셨다. 이곳에서는 이전의 피라미드 장례와는 다른 고분문화를 볼 수 있다. 많은 자원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도굴의 집중 표적이 되는 피라미드 대신 '왕릉의 품위는 유지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고분으로 장례 방식을 바꾼 것이다. 실제로 지하무덤들은 웅장하고 품위가 있었으나 절벽 아래 웅색하게 파여진 입구들을 보니 파라오들이 얼마나 도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계곡마저 고대 피라미드 의식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협곡 위로 높게 솟아있는 봉우리 알 쿤의 존재 때문이다. 알 쿤은 북쪽 입구에서 바라볼



때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아래 흩어져있는 무덤들을 감싸 안고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윗부분의 마감재만 온전히 남고 아랫부분은 뜯겨져 나간 기자의 카프레왕 피라미드가 떠오른다. 이곳을 망자의 지역으로 선택한 파라오와 사제들

에게 이 같은 무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왕들의 계곡에는 62개의 무덤이 있고 이중 개방중인 것은 14개이다. 이번 답사에서 실제로 둘러본 곳은 투탕카멘과 세티 2세, 람세스 3세, 람세스 4세의 무덤이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 입구에 있다. 1922년 11월 무덤 발견 직후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서 마지막으로 발굴된 곳이다. 더 이상의 무덤은 없다”고 선언했었다. 람세스 5세의 무덤 아래에 깔린 듯 자리 잡은 투탕카멘은 바로 그 때문에 도굴을 면하고 3천여 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3천여 점의 부장품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현재 카이로 박물관 2층의 독립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늘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너무나도 유명한 황금빛 마스크, 실물은 그야말로 나를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발이 얼어붙는다는 표현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지금 착용해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지 않은 장신구들 주위에는 여성 관람객들이 진을 치고 있다. 가질 수 없으니 눈으로도 실컷 호사를 부러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리라.


투탕카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부장품들이 모두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미라만은 덧관도 없는 석관 속에 잠든 채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벽화마다 신과 대등하게 묘사되어 있는 파라오조차도 결국엔 무엇 하나 온전히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투탕카멘의 무덤에는



벽화도 매장실에 단 하나 있을 뿐이다. 이마저 관람객들이 뿔어 내는 습기와 온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집트 문화재청은 투탕카멘 뿐아니라 왕들의 무덤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안식년이나 폐쇄 조치를 검토 중이라 한다. 서둘러 보러온 것이 다행이다 싶다.

람세스 3세의 무덤은 입구에서 매장실까지 188미터의 길이이다. 많은 방이 있지만 결방 한곳에 그려진 하프 타는 소녀의 그림이 유럽에 소개되어 한 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소문에 비해 벽화 자체는 썩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이곳에서 눈여겨 볼 것은 입구에서 20미터정도 들어가 갑자기 꺾어진 구조이다. 인부들이 석회석 지반을 파내려 가는 도중 먼저 조성된 아멘메스 왕릉 옆구리를 뚫게 되자 이를 막고 황급히 오른쪽으로 2미터 꺾어 다시 파내려간 흔적이다. 관리를 책임진 파라오의 고위 사제단조차도 이곳의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무덤을 조성했다는 증거이다. 불멸을 꿈꾸는 파라오의 무덤에 지극히 인간적인 임기응변식 대처 방법이기도 더 흥미롭다.

파라오는 부활과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굴이 두려워 절벽 아래 구멍을 파고 숨는 구차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집트 역사가 5천년이라면 도굴의 역사도 5천년이란다. 도굴꾼과의 싸움만이 아니다. 무덤의 관리를 맡은 사제 역시 안전을 구실로 공공연히 보물을 빼돌리고 미라는 한곳에 처박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남의 영생보다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존재인가보다. 영생 또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에 더욱 집착한 것이 아닐까?

이집트에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나 룩소르에서 외신 하나가 전해졌다. 왕들의 계곡에서 도굴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투탕카멘의 무덤 부근, 인부들이 뭔가를 파내던 곳일까? 직접 다녀오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무궁무진한 유물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발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신비의 나라 이집트! '나일강의 물을 마신 자 반드시 나일강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는 말처럼 언젠가 그곳을 또 찾게 될 것만 같다. 그때에도 관광객들을 뺀히 쳐다보던 이집트인들의 깊고 인상적인 눈동자는 그대로겠지. 공용화장실에서 휴지를 떼어주던 고단해 보이던 소녀의 낡은 신발은 새것으로 바뀌어 있을까? 내게는 약간 비릿하게 느껴졌던 사막먼지까지도 벌써 그렇다. 

유리동자상의 은근한 눈길

김 현 희 (회원)

박물관이란 느끼고 생각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보고, 그만큼 많이 느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박물관에 와서 세상의 고민을 풀고 가는 이도 있다하지 않는가. 어느 경영자는 유물의 색, 문양에서 제품 아이디어를 얻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박물관에 나만의 유물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꽤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나의 것이라는 애정으로, 때론 위안 받고 의지도 될 수 있는 유물이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특설강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했다. 중앙박물관 이전관계로 잠시 휴관중이라 나의 유물과 언제 첫 대면을 할 수 있을지 아쉽기만 했다. 그러던 차에 수업의 연장으로 국립공주박물관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잃어버린 왕국으로의 여행, 가슴이 설레었다.

공주박물관은 70년대 무령왕릉의 발굴로 의미가 더해지는 곳이다. 안에서 발견된 묘지석의 기록으로,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무덤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왕릉이다. 아치형 전시실에 들어서니 묘지석이 입구에 놓여 눈길을 끌었다. 그뿐인가. 무덤을 지키는 물소모양의 石獸는 고분 안에서의 첫 발견이었고 국보로 지정되었다.

문득, 답사 기념으로 이곳에 나의 유물을 정해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공주박물관을 추억하게 되리라. 그렇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묘지석과 석수는 나만의 유물로 부르기에는 너무 유명하여 조금 부담스러웠다. 마치 유명한 사람을 그냥 바라보기에는 좋으나 함께 어우러지




기에는 살가운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수월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버린 것일까. 다음 전시구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왕과 왕비의 금제 장식들이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드러내고 있었다. 비단모자에 꽂는 관장식은 얇은 금판에 인동당초무늬와 화염무늬를 새겨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뒤꽂이나 금제 팔찌, 귀걸이의 화려함이 나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너무 눈부신 탓일까. 오래 눈을 맞추기에 그리 편편치만은 않았다. 그렇다면 나의 유물은 어디에 있을까.

불박이 전시장으로 한 두어 걸음 옮겼을 때였다. 스쳐지나가는 나를 은근한 눈길로 끄는 작은 유물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담녹색의 유리로 만든 아주 작은 동자상이었다. 천오백년 세월의 흐름으로 유리는 많이 마모되어 보였다. 높이는 2~3cm로, 확대된 모습이 모니터에 여러 각도로 비춰지고 있었다. 머리는 깎여져있었고 손은 합장한 모습이었다. 몸통의 가운데는 구멍이 나 있다. 발굴시 왕비의 허리부근에서 두 점이 발견되었는데,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장신구에 매달아 왕비 자신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한다. 그래서인지 더욱 마음이 끌리고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왕비는 손 안의 작은 동자상을 만지작거리며 무령왕의 건강과 백제의 부흥, 여인으로서의 작은 행복들도 함께 염원하지 않았을까. 작은 물건에 의지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느껴져 숙연해진다. 나의 마음을 그 염원에 슬며시 엿어본다. 우리네 삶이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나보다.

유리동자상은 양증스러울 만큼 작고 수수했으며, 국보도 보물도 아닌 그냥 유물 자체였다. 가까이 다가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살며시 다가와 나만의 유물이 되었다. 얼마나 은밀하고 가슴 뛰는 일인가.

이제 공주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나의 유물이 있는 공주박물관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유리동자상의 안부도 궁금해질 것이다. 훗날 그 조그마한 유물과 다시 마주하는 날, 그들이 건네주는 삶의 이야기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주고 눈을 맞추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말 걸기

태 강 인 (회원)

지난 2월 9일 아침은 기다리던 연구강좌 등록일. 나름대로 서둘렀는데도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수강생들로 초만원이었다. 많은 강좌가 이미 모집완료다. 원했던 1지망은 포기해야 했지만 다른 듣고 싶었던 강좌를 겨우 턱걸이로 등록했다. 올해도 박물관 식구로 남게 되는구나 싶어 기뻐다. 지난 해 강좌에 등록하면서 나 자신과 했던 약속이 있었다. ‘빠지지 말자!’ 다행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경주 수학여행을 앞두고 지리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다.

“첨성대, 첨성대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가게 되겠지. 하지만 가 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야?’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사람들 눈에 그것은 그저 쉽게 지을 수 있는 석조 구조물로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런 것을 만들기가 지금처럼 쉬웠을까? 천 년 전 삶의 방식으로 첨성대를 짓는 상상을 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거다. 오래 전 그들은 어떻게, 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 너희들은 그런 의문을 통해 아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게다.”

오랫동안 그 말씀을 잊고 지냈었다. 지난 일 년 박물관 특설강좌에서 배운 내용도 요약하면 결국 같은 말이 아닐지.


‘그 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이해하기 위한 말 걸기’

강의를 들으며 내내, 어쩌면 사람 사는 일은 모두 같은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

옛일 같지만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지금 우리네 삶이고, 그 노력의 흔적들이 바로 지금 박물관에서 만나는 많은 유물과 유적일 것이다. 그들의 삶을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내 눈높이를 그들과 맞춰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일 년의 공부로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지만……. 또 박물관 강의를 통해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선조들과의 대화에도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에 가면 열심히 말 거는 연습을 한다. 겨우 일 년 배웠을 뿐인데 가끔은 내게 말을 건네는 유물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럴 땐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라는 나를 발견하고는 열심히 공부하자고 다짐한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비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박물관 강의를 들으러 가는 일이 더 소중한진다.

그리고 보너스 같은 선물 두 가지. 좋은 분들과의 즐거운 만남과 조금씩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일이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같이 배우고 답사하면서 안 보면 아쉽고 그리운 얼굴로 변해가, 이제는 그 만남을 위해서라도 박물관을 찾게 된다. 또 하나의 선물은 오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정경들이다. 지난 해 5월, 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속에서도 많은 꽃과 나무들이 박물관 가는 길에 반가운 인사를 해 주었다. 작은 봉우리였던 꽃망울이 환히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고, 어느새 작은 열매로 다른 생을 준비하는 그 세세한 과정들과 푸르던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도시에서만 자라나 잘 모르고 있었던 세계와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새로 만난 박물관 뜰 곳곳에는 이름도 정겨운 식물들이 심어져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들 또한 참으로 고마운 선물이다.

이번이 용산에서 맞는 첫 번째 봄이다. 물론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강의를 들었지만 유물과의 만남은 잠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봄인 것이다. 잠시 쉬었던 만남의 아쉬움만큼, 참았던 그리움의 깊이만큼 기다렸던 봄이기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 느낌 그대로 뿌듯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 내게 봄은 박물관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다. 

프랑스 판화가 한국에 오다!

-폴 자쿨레 작품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보물〉 (1940)



〈동지〉 (1941)

선 승 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은 재일교포 나성순 (이나가키 데레즈) 씨로부터 프랑스 출신의 화가 폴 자쿨레 (Paul Jacoulet 1896~1960)의 판화 162건을 기증받았다.

폴 자쿨레는 아시아 사람들을 다색 판화로 표현한 독특한 화가이다. 그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을 시작하여, 1930~50년대에 주요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20세기 초 프랑스인의 눈을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 미크로네시아 등의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모국인 프랑스, 삶의 터전이었던 일본, 어머니가 살았던 한국, 환상의 나라 중국, 나비를 찾아 떠났던 미크로네시아의 사람들을 간명하고 단정한 필선과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국적을 초월하는 온화한 시선의 인간애가 깃들어 있다. 나성순씨가 기증한 판화 162건은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작품이 40건, 일본 30건, 중국 31건, 미크로네시아 61건이다. 특히 폴 자쿨레는 20세기 초 우리나라를 소재로 삼았던 서양인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폴 자쿨레의 작품은 다색 목판화이다. 일본의 우키요에의 다색판화 기법을 배워, 최고의 조각

▶ 전시 일정

한불수교 120주년기념 / 나성순 (이나가키 데레즈) 기증 특별전

“아시아의 색채 : 폴 자쿨레 판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_ 2006. 4. 21(금) ~ 6. 4(일)

국립제주박물관_ 2006. 6. 13(화) ~ 7. 30(일)

및 찍기 장인과 공동 작업으로 색깔의 숫자만큼 목판을 준비하고 겹쳐 찍기를 반복하여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는 일본 전통 우키요에와는 달리 많은 스케치와 수채화로 목판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정했다. 이전의 우키요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폴 자쿨레가 수채화와 목판화를 결합시켜 새롭게 개척해낸 것이다. 그래서 60~70여 년 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색채가 생생하다.

기획특별전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의 판화”는 국립중앙박물관(2006.4.21~6.4)과 국립제주박물관(2006.6.13~7.30)에서 개최된다. 한불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소재로 한 폴 자쿨레 판화 작품 모두가 한곳에 전시된다. 또한 일본, 중국, 미크로네시아를 소재로 한 폴 자쿨레의 기증품과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수채화 등의 차용품을 포함한 170건의 작품이 교체 전시로 소개된다. 그의 판화 세계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㉞




폴 자쿨레와 기증자 나성순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실내악

새봄, 천지가 싱그러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면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릴 듯 합니다. 새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처음 맞는 봄,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나무와 풀, 그리고 천지만물을 위해 한바탕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오는 4월 10일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새 이사로 선임된 정명훈이 다가가는 박물관,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후원하는 실내악 연주회입니다.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새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잔잔하면서 귀에 익은 선율을 준비했습니다.

박물관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속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문화적 역량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물관이 벌이는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음악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 위에 뿌려지는 단비 같은 박수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주관** | 국립중앙박물관회,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 **후원** | 국립중앙박물관
- **공연프로그램**
 -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곡 D장조 K.285
W. Mozart : Flute Quartet in D, K.285
 -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J. Massnet : Thäis(meditation) for Violin and Piano
 -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곡 A장조, D.667, ‘송어’
F. Schubert :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The Trout’
- **출연자** | 피아노 정명훈 / 바이올린 데니스 김 / 비올라 홍웨이 황
첼로 송영훈 / 더블베이스 안동혁 / 플루트 박지은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會長 | 徐載亮 · 吳志哲

理 事 | 李健茂 · 朴仙卿 · 朴亨植 · 申硯均 · 安聖基 · 李斗植 · 李仁洙 · 田永采 · 鄭明勳 · 池健吉 ·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 鄭建海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 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납8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연구지원** | 학술연구 조성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등을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일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회지발간 자원봉사** |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연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기부회원

» 법인

■은관회원

(주)종합전기 대표 金 鍾 漢

» 개인

■은관회원

俞 相 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柳 昌 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청자회원

趙 炳 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 榮 秀 변호사
玄 明 官 삼성물산 회장
愼 昌 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 永 珮 김&장 법률사무소
徐 載 亮 아름답기 상임이사
田 永 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 鍾 一 호성흥업회장
申 硯 均 아름답기 이사장
李 雲 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 奉 珠 제일화재 이사장
金 英 惠 세종옛돌박물관장
千 信 一 삼표산업
李 美 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 在 昊
李 明 姬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 容 允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 仙 卿 열화당 대표
李 起 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 永 茂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 仁 洙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 炳 讚 성곡미술관 이사
朴 載 蓮
李 鈴 子 (주)풍산주택 사장
柳 芳 熙

■백자회원

李 京 姬 수필가
洪 錫 肇 전 광주교검장
李 興 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 惠 蓮 대학강사

박물관
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3호

여린 가지 끝으로 수액이 모인다.
연두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
봄이다.
계절이 마침표를 찍는 것은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 위함이다.(河)

그대가 느끼는 것은
보고 보았기에.....(水)

베일에 싸인 천 년 신라로 간다
아! 그 속에서 난, 길을 잃어도 좋다.(정)

봄은 늘 마음을 재촉한다.
그래서 턱없이 얇은 옷을 꺼내 입고
꽃샘추위를 탄다.
꽃인듯.(진)

봄내음에 이끌려 떠난 길,
통도사 홍매화에 흠뻑 취해 왔더니
시샘하듯 춘설이 꽃잎처럼 뿌려집니다.(愛)

영생을 꿈꾸던 그들은 몰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에게 주었던 것뿐임을!(衍)

봄비가 내려야 한다.
멀리서 날아온 먼지 같은 상념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기 전에..
차가운 봄비는 내려야 한다.(리)

발행일 | 2006년 3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미연·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사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한국박물관회의 명칭이 국립중앙박물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토우달린 목항아리(높이 34cm, 국보 195호): 경주 미추왕릉 지구에서 출토되었다. 항아리의 목 부분에 개구리와 뱀, 오리를 3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사람, 거북, 물고기 등의 토우로 장식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168-6, Yongsan-dong 6-ga,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